

# 특집

## 학제적 교양교과목으로서의 글쓰기 교육

하병학\*

\*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최근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국어작문’과목을 필수로 하였으며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가 도입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왜 또다시 글쓰기 교육이란 말인가?

우선 논술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을 살펴보면, 논술고사는 “대학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교 교사의 핵심적인 책무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교육인데, 언급한 것과 같은 통합적인 능력 교육을 담당할 논술 교사를 길러내는 학과는 없고 따라서 논술 전담교사도 없다. 그래서 자연히 논술 교육은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교육에서 시행하는 논술 교육은 논술 문제 족집게 출제와 고득점을 추구하는 글쓰기 기술만을 지향하고 있기에 오히려 논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학생들의 논술고사 답안지를 읽어본 교수라면 모두 심각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글 같지 않은 글도 많지만 모두가 짊아버린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주관적이고도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을 줘야 할 논술 교육이 논술 족집게 강사들에 의해 판박이 글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의 부실의 책임을 대학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제까지 진행되어왔던 ‘국어작문’은 고등학교 국어교육과 큰 차이가 없어 더 이상 기초필수교양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많다. ‘국어작문’이 정확한 표현력만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어작문’을 ‘글쓰기와 읽기’, ‘독서와 글쓰기’, ‘사고와 표현’ 등의 이름으로 바꾸고 정확한 표현력과 더불어 통합적 사고력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첨언컨대 ‘작문’은 문장을 만드는 일 자체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글쓰기’는 글쓰기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듯하다. 다시 말해 한 사회 속에서 타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활동의 의미와 글쓰기 과정이 좀더 드러나는 표현이 ‘글쓰기’라고 판단하고 ‘글쓰기’를 선호하는 것 같다.

글쓰기가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글쓰기는 한마디로 모든 전공 학과에서 학문 탐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최종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초학문 탐구 능력의 하나다.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판단하여 자료를 보완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부족한 점을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글쓰기다. 나아가 글쓰기 활동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의사를 타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는 인성교육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글쓰기 능력은 그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 능력이자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성인의 사회적 소양이기에 글쓰기는 교양교육, 기초교육에 속하는 것이다.

글쓰기 교육에 대한 강조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현대 사회의 의사소통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에는 일방적 정보 전달의 의사소통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쌍방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제공되는 정보를 잘 듣고 읽고 이해하는 것만을 일반인들에게 요구해왔지만 요즈음은 잘 말하고 쓰는 능력까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의 지식 기반 사회는 전래되어온 지식들을 누가 많이 축적하느냐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을 분석·종합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창의력과 새로운 지식을 한 공동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종합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다.

그동안 ‘국어작문’이나 ‘논리학’ 등의 교과목은 바로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분리하여 담당함으로써 교양교과목이 추구해야 할 통합적인 기초 능력 교육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크로스화이트(J. Crosswhite)는 다음과 같이 통렬히 비판한다.

학문 분야의 단종에 따라 글쓰기 교육을 파편화하는 것은 작문이나 비판적 사유 강좌에서, 혹은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부 커리큘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특정 학문 분야의 글쓰기 관습을 가르치는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글쓰기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능력을, 즉 추론하는 능력을, 매우 다양한 전문적인 자료에서 인용하는 능력, 다양한 청중에 적응하는 능력, 삶에서 대면하게 되는 모든 다양하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의사소통 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성의 수사학』, 35쪽)

필자가 근무하는 가톨릭대학교도 2004년 1학기부터 기초필수교양교과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분석력, 비판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배양을 추구하는 학제적 교양교과목을 CAP(창의력, 분석력, 문제 해결력의 영어 약자)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분석과 비판의 기초’,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창의적 문제 해결 심화’(‘정보 획득과 제시’, ‘논변과 설득’, ‘텍스트 해석과 관점’) 등이 속한다. 이러한 교과목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과정을 훈련하는 것으로 간략히 규정할 수 있다.

- ① 주어진 복합적인 텍스트를 분석하여 핵심 요소를 찾아내고 그 연관성을 파악하며 논증을 재구성하고, [분석력]

- ②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산해내고 다른 해결책과 비교·검토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생산하고, [비판력·창의력]
- ③ 이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명확히 전달 혹은 설득함으로써 해당 집단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다.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능력을 모두와 연관성을 지닌 글쓰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고력, 둘째는 표현력(의사소통 능력), 셋째는 내용에 대한 이해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하나의 전공 학문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학제적 기초 교과목인 것이다.

가톨릭대학교의 학제적 교양교과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전공 학과 출신들의 전담교수들의 협동 연구를 통해 공동 기초 교안을 만든다. 과학·사회·예술 등의 수준 있는 내용과 사고력 및 표현력을 통합하는 교과목이 되기 위해서다. 둘째 능력 개발을 위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이다. 그동안 교양교육은 기초적인 전공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 강의 중심의 교육이었고, 이는 교양교육의 부실화를 낳았다. 기초학문 탐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소수의 학생으로 인원이 제한되어야 하며, 제출된 글을 치밀하게 읽고 지속적으로 첨삭해주는 교육 조교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교양교육에 대한 학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현재 가톨릭대학교는 수강 인원이 매강좌당 35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등록금 전액 면제의 교육조교(박사과정 및 석사과정)가 각각의 전담교수에게 제공된다.

글쓰기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방법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수준 있는 학술적 내용들을 창의적으로 사고해서 논리 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글쓰기다. 글쓰기는 한마디로 인간의 분석력과 창의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다.

이제까지 유명 대학에 대해 ‘좋은 학생을 선별하는 것에만 치중할 뿐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에는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것은 이제까지의 대학교육에 대한 반성이고, 질 높은 교육의 시작이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 과적 전술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본질에서 출발하는 이념적 전환이 필요 하며, 학교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과 의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질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글쓰기 전담교수들은 계약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초빙교수, 강의 전 담교수, 비정년 전임교수 등의 비정규직 교수들이다. 강사 중심의 교양 교육이 교양교육의 부실화를 낳았던 과거를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학제적 기초교육도 정상적인 전임교수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교과목명 만 ‘글쓰기’로 바꾼다고 해서 제대로 된 ‘글쓰기 교육’이 보장되지는 않 는다는 말이다. ⑤